

에너지재단, 노후 냉장고 교체로 배출권 획득

한국에너지재단은 LG전자와 공동으로 추진한 <저소득층 노후 냉장고 교체사업>이 국제자발적탄소표준협회에 등록돼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6월19일 발표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 냉장고 교체사업은 저소득층의 전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낡은 냉장고를 고효율 냉장고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이다.

LG전자와 에너지재단은 2010년 사업을 처음 시행해 3052가구를 지원함으로써 2012년부터 10년간 848CO₂톤의 탄소배출권을 배정받게 된다.

에너지재단은 탄소배출권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다시 투자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저소득층 주택 단열시공, 창호교체 사업 등을 통해서도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1/06/20>